

석재외장에 근대주의 수용, 합리성과 개방성 추구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 8

석조고딕 모티브의 지속과 변용: 1950년대 후반의 건물들

지난 호에 서술했듯, 1955년과 1961년의 두 단계에 걸친 서관 준공과 함께 고려대학교의 중심 건축물군은 비로소 자리를 잡고 균형을 이루게 됐다. 요컨대 본관을 중심으로 좌우에 도서관과 서관이 호위하는 고딕 석탑의 삼부구성이 완성됐으며, 대운동장이 그 앞마당으로서 역할하게 된 것이다. 캠퍼스 전체의 건축적 발전을 통시적으로 조망할 때, 이는 분명 하나의 발전 단계를 일단락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하나 당시 고려대학교의 건축물 확충이 서관 하나에서 멈춘 것은 아니었다. 피난 중에 부족 증가한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공간이 필요했고, 그간 신설된 농과대학과 이학부를 위한 실험시설도

이런 특징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근대주의(modernism)의 합리성과 단순성, 그리고 개방성을 향한 전이를 암시하기도 했다.

농과대학(현 사범대학)

우선 농과대학 건물을 보자. 도서관의 동쪽 편에 터를 잡은 이 건물은 1955년 6월 착공해 익년 4월 준공됐다. 평면은 동서로 길게 뻗은 직사각형을 주조로 하며, 서측 배면 일부가 북쪽으로 살짝 팔을 뻗은 형국이다. 전자는 2층, 후자는 1층으로 지어져 도합 1,716㎡(520평)의 공간을 담았는데, 상단은 모두 경사진 박공지붕이다. 또한 이전 선배들을 따라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화강암 외장을 차용했으나 전체 마감은 특별한 장



1957년 완공된 신관(현 대강당). 학생수 증가와 대형과목 강의실을 위해 건축됐다. 단층이지만 강의실이 계단형이라 후면 아래에 부속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 두 날개가 만나는 출입구의 납작한 아치와 상단 여장은 이 건물만의 특징이다.

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 서구적 풍모는 학교 주변의 안뜰형 도시 한옥이나 초가집과 대조를 이룬다. 그런 와중에도 일부 벽면이 이전 건물들과 유사한 패턴의 화강암으로 마감돼 캠퍼스 분위기의 일관성에 일조했다.

신관(현 대강당)

서관 전면의 하단에 세워진 신관(1956.9~1957.4)은 20년 전부터 추진되던 대강당 건축의 실현이다. 1,474㎡(446평) 규모의 이 건물은 700명 수용의 강의실 2개로 이뤄졌다. 학생수의 증가에 따라 300~400명 규모의 대형 과목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단층이지만 강의실이 계단형인 관계로 후면 아래에는 부속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신관의 뾰족아치와 부속벽은 본관 이래의 고딕풍 모티브를 계승한 전형적 요소다. 그러나 두 날개가 만나는 안쪽 모서리를 사선으로 처리해 납작한 아치의 출입구를 두고, 상단을 여장으로 마무리한 점은 이 건물만의 특징이라 하겠다.

여학생회관

한편, 1958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는 본관과 도서관의 뒤편에 연면적 396㎡(120평)의 교수회관 겸 여학생회관이 건축된다. 이 건물은 외벽의 상당 부분을 화강암으로 거칠게 마감함으로써 전래의 석조 모티브를 지속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근대주의 건축으로의 이행을 잘 보여준다. 우선, 1, 2층의 단순한 사각형 평면이 기둥이나 내벽 없는 무주공간(無主空間)을 담으며 다목적으로 기능



철거된 외인교수 사택. 1956년 현 정경관 자리에 세워진 양옥집으로 서구 근대주의적 풍모에도 석조고딕 모티브를 유지했다.



철거된 여학생회관. 1958년 세워진 이 건물은 석재 마감 속에서도 기능적, 시각적 합리성을 담은 근대건축으로의 전이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게 된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정면 좌측 창구의 규칙적이고 명쾌한 배열이 무척 근대적인데, 이는 두 층을 관통하는 수직 멀리언(mullion)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일련의 멀리언은 전면부 너비가 18cm에 불과해 창틀로 보일 만큼 가늘지만, 60cm의 깊이를 가짐으로써 벽체의 기둥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기능적, 시각적, 구조적 합리성을 통해 건축가 박동진은 여학



김현섭(건축공92) 모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가 박동진 설계로 세워진 건물들 종합대학으로서의 물리적 면모 보여줘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환도 후 서관 신축을 전후해(정확히 말하면 서관의 1차 준공 후부터 2차 착공 전까지의 1950년대 후반) 크고 작은 건축물들이 여럿 들어섬으로써 고려대학교는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서의 물리적 면모를 갖춰나간다.

예컨대 농과대학 건물, 외인교수 사택, 신관(新館), 여학생회관 등이 여기 속한다고 하겠다. 이 건물들도 박동진에 의해 설계됐는데, 캠퍼스 중앙의 본관, 도서관, 서관만큼 화려하지는 않으나 대개 석재 외장의 고딕 모티브를 지속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점차 육중한 돌붙임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보

식 없이 단출하다. 1958년 12월에는 동서 방향의 몸체를 3층으로 증축하고 평지붕으로 마무리했다. 이 건물은 1976년 농과대학이 예기능의 신교사로 이주하면서 사범대학 본관으로 다시 자리매김한다.

외인교수 사택

그러나 이 농과대학 건물보다는 비슷한 시기 캠퍼스에 들어선 조그만 양옥 한 채가 우리의 눈길을 더 사로잡는 것 같다. 1956년 8월, 현재의 정경관 자리에 들어선 외국인 교수를 위한 사택 말이다. 남아 있는 사진으로 판단컨대, 이 집의 평활한 벽면과 개방적 테라스는 근대주의 건축과의 연계성



농과대학 교사. 1956년 준공 당시엔 모두 박공지붕이었으나, 1958년 남측 2층 매스가 3층으로 증축되며 평지붕을 갖게 됐다. 1977년부터 사범대학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